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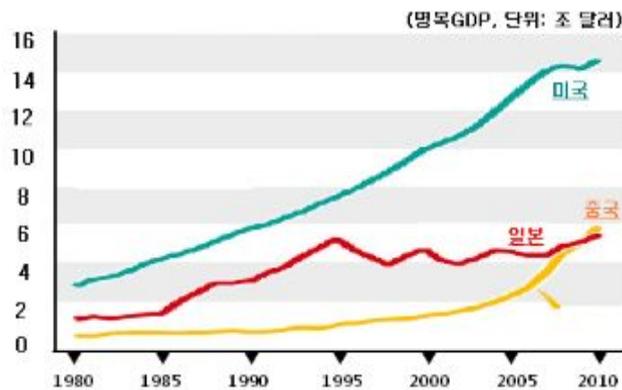
일본 지난해 국내총생산 세계3위로 전락

□ 일본의 2010년 국내총생산이 중국에 추월당하여 42년만에 세계 3위로 전락함.

- 일본은 2010년 명목 국내총생산(GDP)이 5조 4,742억달러로 중국의 5조 8,786억달러 대비 4,044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.
-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최근 10년간 연간 10% 전후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,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적인 저성장 경제의 기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.
- 이에 따라 일본의 GDP는 중국의 추월로 인하여 42년만*에 세계2위의 경제대국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, 이에 따라 미국(14.6조 달러), 중국, 일본의 순으로 세계3위를 차지하게 됨.

* 1968년 GDP기준 세계2위이던 서독을 일본이 추월함에 따라 42년간 세계2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

<그림> 미·중·일 연도별 GDP 추이



□ 이에 대해 일본 정부(경제재정상)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순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, 일본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중국의 역전이 당연하다는 반응임.

- 또한,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기쁘지만 앞으로 아시아지역 경제가 동반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
-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인구가 중국의 1/10에 불과해 중국의 경제규모를 앞서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반응이지만 경제규모는 1인당 GDP 등 삶의 질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. (산케이신문 2/14)